

社說

불우이웃돕기 시스템 구축

우리사회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천신문이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한 것은 이같은 사각지대에 온정의 손길을 베풀기 위함이다.

구랍에 9월7일 포천신문 조사회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구랍에 11월 본격 추진하게 된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접수되었고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전달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먼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었다. 원칙을 세웠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대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학생들을 추천 받기로 했다.

학교 학생 추천은 포천신문 조사회위원회에 부탁했다. 각 지역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또한 추천을 받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직접 전달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우이웃돕기 시스템 구축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봉사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조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천신문 조사회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학교 시스템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학생들을 추천 받기로 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학생별 카드와 작성, 비치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불시에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금 모금에 앞장서야 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앞장 선 사람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보관, 유지하는 물론 지면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영구적 보존의 기능은 물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보존작업도 아울러 병행함으로써 투명명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에 있는 방송이나 신문 매체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 자신이 접수한 성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심시일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성금접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보다 밝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함이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직접 실천하는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경기도 신설해야 한다 ③

分道の 당위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분도는 우리의 주권을 권력의 힘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의 요구이다.

03. 5월 경기북부지역 인터넷 포털사이트(두루)가 북부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74명(91%)가 분도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모 신문사가 리서치월드와 공동으로 도민 약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 두 개로 나누자는 분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반대 의견이 42.1%로 조사 됐다. 반면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7.7%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부지역 주민 대다수는 찬성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어떠한 정치적 이익 집단의 갑작스런 분도론으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짜 맞춰지거나, 그들의 입지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분도가 되는 경우 제일 큰 이익을 보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권행사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고, 과반으로 은근히 반대 입장을 표방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북부지역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쪼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도 1천년을 유지해온 우리의 동질 삶을 말이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3.8선을 따라 접해있는 북부지역 주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고, 광활한 원리 원칙마저도 준수되지 않는 현행 체제를 부정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

지에서 나오는 분도 목소리는 당연하다.

한강과 서울을 경계로 하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권이 확연히 달라 남부지역 투자가 북부지역에 파급효과가 없으며 전파되지도 않는다.

경기도는 이제 인구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경기도는 인구 규모나 재정규모 면에서 서울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명실상부한 “웅도(雄道)”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를 생각하면 우선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신도시가 떠오른다. 그리고 출고를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경행과 삼성이 있는 수원을 생각하면 잘사는 광역 자치단체라는 생각이 뒤를 잇는다. 이런 생각들이 경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이다.

그러나 흔히 “한수 이북지역”으로 불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정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큰 차이가 난다. 각종 규제와 부족한 인프라,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낙후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경기도 2청사의 경우 예산을 분청과 분리에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지만, 관할 예산은 도 전체 예산에 약 12~13% 수준이다. 북부지역 시·군의 수나 인구 면적 등에 비해서 매우 모자라는 규모다. 북부지역 시·군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현황으로 볼 때 독립기구가 아닌 분청 예측기관이란 시기가 팽배하다.

자치단체 규모가 큰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참여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은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3중 제재에 희생당했으나 경기도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만을 대변하는 등 정치적 행정적 청구의 질적 부재로 인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아온 분도는 당연한 주장이다. 분도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단체가 약 50여개나 생겨야 하며 국고지원으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분도 주장 이유중의 또 하나는 인구 260만 명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다음으로 많은 규모로 행정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여권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갖춰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도내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고양시를 제외한 재정현황은 실로 엉망 그 자체이며, 균등발전 운동하는 것은 말로만 일 뿐 실질적인 경기북부지역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분도시 외청과 사업소 사설 등 특별 행정기관까지 설치될 경우 공직자 추가증원 등, 비용발생으로 결국 재정파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문제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 확보 및 현실성 결여 때문에 분도를 미루어 왔다고 하자. 그러나 분도의 당위성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분도가 된단 말인가? 분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북부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할 때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분도는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 이제는 북부지역 주민 스스로 나아가 길을 우리 모두가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경협시대, 통일 시대를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에너지 결집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코네티컷,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등등 상당히 작은 면적의 주들이 서로 붙어 있다. 그들은 확실히 화된 것대로 작은 주들을 통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그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정기 월례회의

20여명 참석 ... 새 위원장에 이민형씨 선출

포천경찰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한철, 이하 행발위)는 구랍 22일 포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행정발전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구랍 26일 부임한 김영목 포천경찰서장의 환영과 신임 행발위원장 선출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발위는 이한철 행정발전위원장과 위원 20명을 비롯해 김영목 포천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실시된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정순호 위원과 김한근 위원이 2004년 행발위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 김영목 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전국최우수품 선정배경 및 경과 ▶LAMP(사랑나눔실천)운동 활성화 ▶연말연시 주요치안상황 등을 보고한 후 위원회

자제토의가 진행됐다.

위원회 토의에서는 4년간 임기를 수행해 온 이한철 現위원장의 후임으로 경기아스콘 이민형 대표를 선출했다.

이민형 신임 위원장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재 4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25명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한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김영목 경찰서장이 참석한 첫 번째 위원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연말에 마련한 위원회가 뜻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목 서장은 “경찰로서 마지막으로 부임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구랍 22일 포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가 개최된 기문대 구랍 26일 부임한 김영목 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거두겠다”며 “연말연시 전 경찰력 위는 내년 2월 중 실시될 예정이 될 동원한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행발

지하배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의회 의사종료 축하연 마련

지방화시대 감동·체감의정 실현 할 터



포천시의회는 구랍 22일 여성회관에서 2004년도 의사종료 축하연을 마련하고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는 구랍 22일 여성회관에서 2004년도 의사종료 축하연을 마련하고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포천시의회는 축하연에서 포천시 관계자 및 기관단체장,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발 전유공자 시상과 기념식, 오찬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최대중 의장은 기념사에서 “각 지자체들은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지방화시대를 개척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체감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

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열 포천시부시장은 축하사에서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자치경영과 해외교류 등으로 인해 가장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다”며 “내년에는 자치경영을 완성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생활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의정발 전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구랍 14년, 세종관과 포천동사무소,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마련됐다.

▶주민 감사패 수여자 ▶소홀을 김명희 ▶군내면 김순우 ▶내촌면 박숙희(부녀회장) ▶가산면 이유용(청년회장) ▶신북면 김재식(4-H연맹신북지회장) ▶창수면 김복식(부녀회장) ▶영중면 안인자 ▶일동면 김미숙 ▶이동면 장진희 ▶영북면 임은재(영북노인회장) ▶관인면 안윤빈(관인외용소방대장) ▶화현면 김진복(생활개선회장) ▶포천동 정용식 ▶선단동 윤재자.

▶유공 단체 및 공무원 감사패수여자 ▶단체 포천시세정과, 포천동사무소 ▶공무원 포천시 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정진철, 포천시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주상, 포천시 세정과 지방세무주사보 최형규, 포천시 지역산업과 지방행정

서기 김태현.

한편 포천시의회는 구랍 1년 동안 ▶집회일수 9회(80일)로 ▶정례회 2회(30일) ▶입시회 7회(50일) ▶소임위원회 운영(43회) ▶운영위원회 11회 ▶행정자치위원회 16회 ▶산업도시위원회 16회 ▶특별위원회 운영(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2회 ▶행정사무감사·조사위원회 9회를 운영했다.

또한 안전처리현황으로는 ▶조례안 53건 ▶예산안 4건(본예산, 추경예산) ▶업무보고 2회 ▶시정질문 31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7건 ▶기타 11건 등을 처리했다.

지하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이철우 국회의원의원직 박탈위기

서울고법 항소심서 원심으로 250만원 선고



정치권에서 간접으로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의 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순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 포천·연천)국회의원을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으로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록 증인들이 하나라당 당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들이 모두 우연히 잘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하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에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 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轉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기사체보 (031)542-9115 편집인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인 장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구랍 22일 오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쌀생산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쌀판매회유여연장협상재협상추진결의안을 채택을 위해 농수산위 위원들과 고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23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주요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축한에도 국가방위와 치안유지, 화재예방을 위해 여념이 없는 군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대중 포천시의회의장은 구랍 22일 포천시의회에서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성회관에 마련된 2004년도 의사종료 축하연에 참석해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한 의원들과 관계자, 시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구랍 28일 경기도 지사 및 경제인등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조맹규 단장·현대 아산 김운규 사장 등과 함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에스케이테크에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삼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구랍 22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총회에 참석해 농업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쌀개방 등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등 당면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의원은 구랍 26일 군내면 명산리에서 개최된 이진호 전 포천군수 송덕비 제막식에 참석해 송덕비건립추진 경유 및 결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한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송덕비제막의 의미를 알렸다.

이천목 포천시의회의원은 구랍 28일 포천시 청 접견실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단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과 분양, 해외자본유치 및 공동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주)MDM과 투자이행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강태선 포천시의회의원은 구랍 24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개최된 2004 포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회장으로 참석해 우수 새마을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과 한해동안 새마을사업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 및 부녀회의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원은 구랍 21일 신음동 소재 모음식점에서 개최된 2004년 포천동 송년회 행사에 참석해 포천동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체육회 등을 격려했다.